

# '오만한 미덕'이 지닌 미치호사가 '달리', '그의 사람'이 되는 법

.....괴상한 치장과 몽환적인 작품세계로 전 세계인들의 기억 속에 각인된 화가 달리(1904~1989)..... 지난 5월 11일은 초현실주의 화가 살바도르 달리가 태어난 지 100년 되는 날이었다..... 전 세계는 그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올해 다양한 행사들을 추진하고 있다..... 스페인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이 올해를 '달리의 해(Year of Dail 2004)'로 지정하고 그의 예술적 행보와 인생 등을 열심히 좇고 있는 상태다..... 달리의 작품들은 곧 우리나라에서도 얼굴을 내밀 계획인데 이와 마주하기 위해선 달리에게로 향하는 몇 가지 문을 열어볼 필요가 있다..... 달리 자체가 워낙에 몽환적이고 독특한 인물 이었던 까닭..... 이와 관련해 여기 그의 초현실적이고 몽환적인 작품세계와 평범치 않았던 삶의 이력들을 좇을 몇 가지 통로를 제공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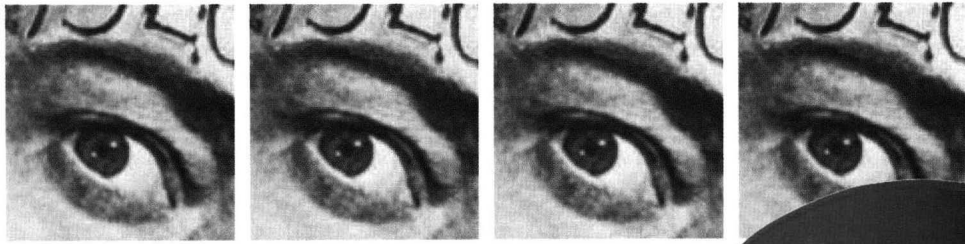


〈시간의 단면 profile of time〉좌

〈우주코끼리 space elephant〉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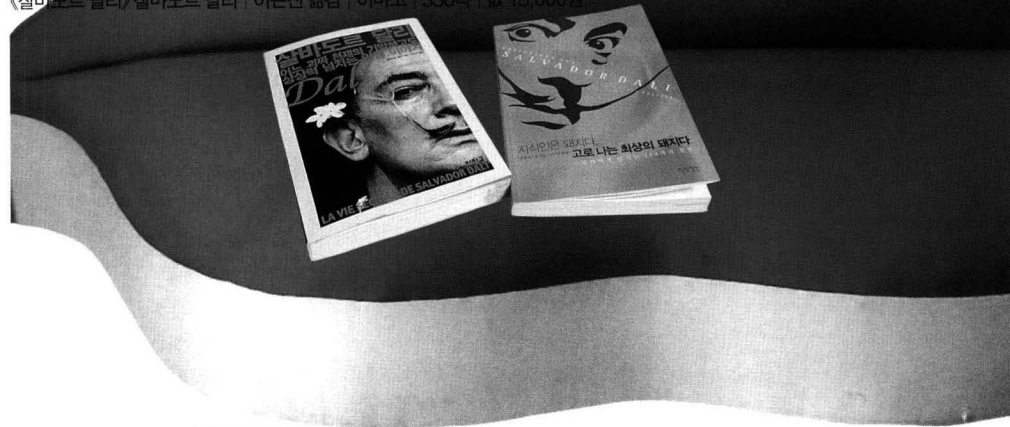
파리의 한 호화 호텔. 굵은 줄무늬가 그려진 짙은 청색 양복차림의 남자가 앉아 있다. 희한하게 말아 올린 기괴한 콧수염, 뒤통수를 치면 '톡'하고 떨어질 것 마냥 돌출된 커다란 눈을 소유한 남자. 그가 곧 당신을 향해 말을 건넬 것이다.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그 큰 눈을 더욱 부릅뜨면서! "사람들이 나를 신성한 달리라고 부르더군요." 만약 그의 말을 받아치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철학 등 전방위적으로 함께 이야기 꽃을 피울 자신이 있다면 대답을 할 것이요, 그럴 자신이 조금이라도 없다면 애초부터 대답을 하지 말자. 소문에 의하면 이 남자는 자신감에 차

있다 못해 오만하며(물론 오만할 만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철학 등이 세상 모든 것들을 너무도 잘 꿰뚫어본다.) 광장에 착중 환자처럼 떠들썩한 분위기를 좋아해 누구라도 자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청중집단으로 편입시키려 든다 하니 노련한 그에게 소진한 당신은 '잘 걸려든' 청중쯤으로 보일 게 뻔하다.



‘기괴하고, 돈을 좋아하며, 뻔뻔스러운 만큼 솔직하며, 솔직하다 못해 오만한 인물’로, 20세기 초현실주의의 최고 아티스트로 평가받는 달리에겐 좀체 ‘검손의 미덕’이 보이질 않는다. 그런데 그런 그를 앞에 앉혀놓고 설새없이 질문을 건네는 자가 있으니 그는 알랭 보스케란 프랑스 작가 겸 평론가다. 직업이 말해주듯 그는 달리에겐 ‘잘 걸려든’ 순진한 대화 상대가 아니라 달리의 오만함과 맞장 뜰 만한 능력을 갖춘 화술의 고수이니 캔스레 속단하며 그를 염려할 필요는 없다. 물론 성인군자처럼 달리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도 하나의 트릭일 뿐이니까. 모름지기 싸움은 고수들이 등장할 때 그 재미가 배가되는 법인데 《지식인은 돼지다, 고로 나는 최상의 돼지다》가 술술 읽히는 이유 역시 하늘을 찌를 듯한 오만함의 소유자 달리와 그에게 순발력 있게 질문을 건네는 알랭 보스케의 기교 싸움이 팽팽한 긴장을 생산해 낸다는 데 있다. 물론 알랭 보스케의 질문에 끝없이 ‘비범한’ 대답들을 내놓는 달리의 기인스러움이 그 긴장의 바탕을 이루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오늘은 짓궂은 질문을 미리 해보겠습니다. 오래 생각지 말고 대답해 주십시오.” 알랭 보스케는 제안한다. 이에 질세라 달리는 틈을 두지 않고 말한다. “중소, 나도 따발총을 좋아하니까.” 알

《지식인은 돼지다, 고로 나는 최상의 돼지다》 알랭 보스케 지음 | 강주현 옮김 | 작가정신 | 224쪽 | 값 9,800원  
《살바도르 달리》 살바도르 달리 | 이은진 옮김 | 아마고 | 336쪽 | 값 15,000원



〈메이 웨스트 립소파 divan mae west〉

랭 보스케는 비꼬듯 또 묻는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살고 싶지는 않습니까?” 달리는 역시 아랑곳하지 않고 뻔뻔스럽게 대답한다. “그렇게 하기란 정말 어려울 거요. 달리란 이름과 얼굴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을 테니까”라고. 이쯤되면 달리의 오만함이 갈잖아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절대 중요되지 말고 이후의 대화에 기대를 걸었으면 싶다. 인생철학 정치 예술 여자 성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독설과 조롱을 퍼붓는 달리의 ‘오만한 철학’ 끝에서 무의식과 초현실주의의 세계를 잠을 짓이요, 위선과 거짓을 한 꺼풀씩 벗겨내는 광인狂人의 순수한 기교도 더불어 얻게 될 테니까. 이 책은 이렇듯 미치광이나 다름없는 지식인과 예술가의 한판 대결 속에서 달리라는 예술가의 순수함, 그를 지배하는 무의식 세계와 우리를 조우시켜주는 중계역할을 특특히 해주고 있다. 또한 달리가 얼마나 구속받길 좋아했고, 폴 엘뤼아르의 부인인 갈라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어떤 색을 좋아했고, 어떤 물건을 아꼈는지, 가장 많이 눈물을 흘렸던 때는 언제인지 등 지극히 개인적인 팩트들을 달리 본인의 육성으로 들려준다. 달리에게 다가가는 새로운 통로를 마련해주는 데 모자람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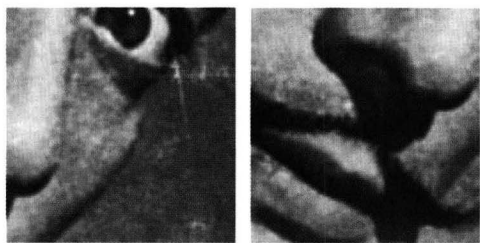
대담인 까닭으로 《지식인은 돼지다, 고로 나는 최상의 돼지다》가 일러주는 달리 관련 팩트들이 질문자의 뜻대로 제시했다면 《살바도르 달리》에서 달리는 자서전이란 타이틀을 담보로 스스로 하고자 했던 삶의 이야기들을 더욱 제멋대로 술술 풀어쓴다. 1941년 그의 나이 서른일곱, 즉 전체 인생의 반을 살았을 때 자서전을 정리한 달리는 남들이 보여주는 회고조의 자기웅시가

결들여진 자서전과는 전혀 다른 예측불허의 자서전을 완성한다. 독자들의 기대에 부응하듯 그는 어머니 뱃속에 있을 시절부터 회상하는데 그곳을 '기막히게 쾌적한 낙원'으로 서술하기도 하고, 어릴 적 재능을 '각별히 출중한 내 실력'이라 평가하며 이 자서전 자체를 '세계문학사상 초유의 사건이 될 것'이라 소개하는 '오만한 자세'도 결코 버리지 않는다. 사실 이 책에서 가장 재미있는 챕터는 '단 하나의 사랑 갈라를 만나다'다. 아버지로부터 의절하는 편지를 받아가면서도 폴 엘뤼아르의

부인이었던 갈라에게 사랑을 퍼부었던 달리의 애정행각 이면에 담긴 그의 색다른 속내들을 만나게 해주는 부분인 까닭이다.

그렇지만 여전히 달리는 달리다. "나는 1929년부터 나의 천재성을 자각했다"고 말하는 달리 앞에서 독자들은 또 한 번 할 말을 잃을 테다. 그렇지만 책을 다 읽은 후엔 "내가 가감없이 들려줄 일화들이 진짜로 진짜이고 나 자신의 이미지를 이루는 속살"이라는 달리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만큼 달리의 마력에 빠져 있을 것이다. 곡예사마냥 문장과 문장 사이에서 유연하게 몸을 놀리는 달리의 글을 읽어내려가다 보면 그의 기발한 생각들을 '매력적'이라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맞닥뜨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가만 있어도 '천재'로 불렸을것을 화가 달리는 스스로를 '천재'라 자평하며 오히려 자신의 예술가적 위엄을 깎아내린다. 그래서인가. 두 책을 덮는 우리는 '미친 척'하고 살아가는 달리가 진짜 '미친' 비범한 인간이었는데 자신도 모르게 손을 들게 되면서 그의 마력에 빠지고, 결국엔 그의 추종자가 돼 버리기 쉽다. 행여나 그게 두렵다는 독자가 있다면



〈사람이 있는 비너스 venus aux tiroirs〉



이제 붉은 줄무늬가 그려진 짙은 청색 양복차림에 기괴한 콧수염을 자랑하는 남자가 말을 건네도 두려워 말라. 달리와 관련된 두 권의 책을 읽고 전시를 둘러보았다면 당신은 살아생전 달리가 말했던 '달리사람들' (달리와 섞여서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달리에게 매달리는 사람들, 즉 추종자)이 충분히 돼 있을 테니. **▶▶▶**

김정연 기자 | 사진제공 · 마이아트링크

전시제목	살바도르 달리 탄생 100주년 특별전
전시일정	2004. 6. 12.~9. 5.
전시오프닝	2004. 6. 12. (토) 오후 5시
전시장소	예술의전당 미술관
작품구성	조각 30점, 판화, 과슈, 콜라주 등 300점, 가구 7점, 패션 10점, 달리관련사진 40점(총 400점)
부대행사	초현실주의 패션쇼, 달리영화상영, 인터랙티브 판타지 프로그램 등